

Garden: Week One

Dust + Breath

Bo Stern-Brady

April 7, 2024

정원: 첫째 주

먼지 + 숨결

보 스텐-브래디

2024년 4월 7일

Garden review. We are His garden, the seed that He plants into the world that He loves.

정원 리뷰: 우리는 그분의 정원이며, 그분이 사랑하는 세상에 심어놓은 씨앗입니다.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And the LORD God planted a garden eastward in Eden; and there he put the man whom he had formed. Genesis 2:7-8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사람을 지으셨으며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매 사람이 생명이 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동산을 심으셨고 거기서 그가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2:7-8

Dust (apar) = dry earth, dust, powder, ashes, earth, ground, mortar, rubbish.

Dry earth: 건조한 흙 (geonjohan heuk)

Powder: 가루 (garu)

Ashes: 재 (jae)

Earth: 대지 (daejee) or 흙 (heuk)

Ground: 땅 (ttang) or 지면 (jimyeon)

Mortar: 몰탈 (moltal)

Rubbish: 쓰레기 (sseuregi)

Breath(neshamah) - Breath of God. The animating, activating power of God that turns dust into life.

"숨결(네샤마) - 하나님의 숨결. 먼지를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활기찬 작용."

In this creation story, he includes the humbling reality that we are made of dust. (Couldn't have have used something better? Loftier? Prettier? Couldn't we be made of clouds or ocean waves or mountain snow?). It feels to me like a divine reminder to remember: *Dust*. We come from the foundations. We are a small part of the big story, but then...into our dusty frames He breathes His own breath and stamps His own image (Gen 1:27). We are dust - that's humbling. WE are a beautiful, mysterious combination of the dust of the earth and the breath of God. That gives us humility but also significance. Humanity is set up for endless success and abundance.

여기 창조 이야기에서, 그는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진 겸손한 현실을 포함시켰습니다. (더 나은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더 높은 것? 아름다운 것?

우리가 구름이나 바다 파도, 산봉우리의 눈결로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상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먼지. 우리는 기초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큰 이야기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먼지로 이루어진 몸 속으로 그분은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고 자신의 형상을 새기십니다 (창세기 1:27).

우리는 먼지입니다 - 그것은 겸손합니다. 우리는 먼지의 땅과 하나님의 숨결의 아름다운, 신비한 조합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함뿐만 아니라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인류는 끝없는 성공과 풍요로움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Isaiah prophesied it:

1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freedom for the captives
and release from darkness for the prisoners, a
2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to comfort all who mourn,
3and provide for those who grieve in Zion—
to bestow on them a crown of beauty
instead of ashes,
the oil of joy
instead of mourning,
and a garment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of despair.
They will be called oaks of righteousness,
a planting of the Lord
for the display of his splendor. Isaiah 61:1-3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1주재의 영이 내게 임하셨음은,
주께서 나를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임은,
상심하는 자들을 싸매어 주시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어둠 속에 갇힌 자들에게 풀어 주시려고 보내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2또한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픔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3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살피심으로,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운 관을,
애통 대신 기쁨의 기름을,
절망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리니,
그들은 의로운 참나무라 칭하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식물이 될 것이오리다. 이사야 61:1-3

The Spirit (Ru-ah = BREATH) of the Lord has anointed me...has anointed me to bring beauty where once was ashes (same word = DUST) , to become something more, something anointed, something dynamic and life-giving to bring healing to my broken world... to become a garden that flourishes against all the odds.

For as the soil makes the sprout come up
and a garden causes seeds to grow,
so the Sovereign Lord will make righteousness
and praise spring up before all nations. Isaiah 61: 11

주님의 영 (루아 = 숨결)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나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재 (동일한 단어 = 먼지)가 있던 곳에 아름다움을 가져오기 위해, 더 나은 무언가로, 기름
바른 무언가로, 역동적이고 생명을 주는 무언가로, 나의 부서진 세상에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정원이 되기 위해. 대지가 싹이 나게 하듯이
정원이 씨앗이 자라게 하듯이,
주재의 영광과 찬송이 모든 민족 앞에서 솟아오르게 하리로다. 이사야 61:11

Here we see prophesied the breath of God into our dust, creating beauty, splendor, dancing, flourishing. Fast forward eight centuries. Jesus spends time in the wilderness, being tempted by Satan. Not theology here, just something very visual and evocative to me: The children of Israel are led to the wilderness for 40 years of wandering. Jesus is led to the wilderness by the Holy Spirit for 40 days of testing. In the east, this wilderness is a desert. It's miles and miles of dust. In my mind, being stuck in a desert represents aching loneliness, searing heat and endless longing...it's dust with no breath. (Winter with no Christmas. Dust minus breath = death, despair. Dust + Breath = John 10:10, life, life, more life.) That's where Jesus finds Himself (and he's also been fasting for forty days - further denying the needs of the dusty side of his humanity)...led by the Holy Spirit, the Holy Breath, to face down sin. (Satan works hard to create all kinds of diversions for him - out in the dust. It's all there is to do out there. Create a counterfeit sense of life - fill your own hunger, fill up on earthly power, possession, success, defend your God at the expense of obedience - the test Eve failed, Jesus conquered) And look at the condition in which he returns.

여기 우리의 먼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 영광, 춤추는 모습, 번성이 창조됩니다.

팔 세기가 지난 후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황무지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시각적이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40년 동안 황무지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40일 동안의 시험을 받기 위해 황무지로 인도되었습니다. 동쪽에서 이 황무지는 사막입니다. 수많은 먼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사막에 갇힌 것은 아프고 외로운 고통, 타는 듯한 더위, 끝없는 동경입니다... 그것은 숨결이 없는 먼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없는 겨울. 먼지에서 숨결이 빠진 것 = 죽음, 절망. 먼지 + 숨결 = 요한복음 10:10, 생명, 생명, 더 많은 생명.)

예수님은 자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사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 먼지 속에서 그의 인간적인 면의 요구를 더욱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숨결, 에서 인도받아 죄와 맞서다. (사탄은 그를 위해 모든 종류의 방해책을 만들어냅니다 - 먼지 속에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부입니다. 가짜 생명의 느낌을 만들어내세요 -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세요, 세속적인 권력, 소유, 성공을 얻으세요, 순종의 대가로 자신의 하나님을 옹호하라 - 이브가 실패한 시험, 예수님이 정복한 것)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상태를 보십시오.

And Jesus returned to Galilee in the power of the Spirit... Luke 4:14

Jesus returns full of the *breath* (*pneuma* - wind, breath, spirit) of God. And he goes to the temple where they hand him a scroll and he reads it: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숨결 (프네우마 - 바람, 숨결, 영)으로 가득 차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이 그에게 두루마기를 건네주고 그가 그것을 읽습니다:

[18](#)"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set the oppressed free,
[19](#)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Luke 4:18-19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음은,
그가 나를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임을,
그가 나를 보내어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맹인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투덜뚱 자들을 놓아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다." 누가복음 4:18-19

He calls back those beautiful, dust-to-dancing words of Isaiah and then concludes his sermon:

Then he rolled up the scroll, gave it back to the attendant and sat down. The eyes of everyone in the synagogue were fastened on him. He began by saying to them,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Luke 4:20-21

그는 이사야의 아름다운 먼지에서 춤추는 단어들을 되돌아보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말아서 사환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다 주님께로 몰려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너희들에게 들려집니다." 누가복음 4:20-21

Jesus says, "I am the fulfillment of this word..." He's not just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tic words of Isaiah, He is the fulfillment of the longing in every one of us. The longing for life and flourishing and an existence that is truly, totally, emphatically alive and free. He comes to speak this kind of life into the seed and soil of our soul.

Jesus steps into the endless aching frustration of life-as-dust. The monotony. The boredom. The loneliness. He holds firmly to the breath of life and emerges triumphant - and carrying enough breath and life for all of us. Look at his conversation with Nicodemus: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적인 말씀의 성취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원의 성취자입니다.

생명과 번영, 그리고 정말로, 완전하고, 단호하게 살아 있고 자유로운 존재에 대한 영원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의 씨앗과 흙 속에 이러한 종류의 생명을 말씀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먼지로서의 삶의 끝없는 아픈 좌절 속으로 들어서십니다. 단조로움. 지루함. 외로움. 그는 생명의 숨결을 단호히 잡고 승리로 나타나십니다 -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충분한 숨과 생명을 안고 나타나십니다. 그의 니게도모와의 대화를 살펴보십시오:

Now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leader of the Jews. [2](#)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Jesus replied, "Trul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Nicodemus asked. "Can he enter his mother's womb a second time to be born?"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Flesh is born of flesh, but spirit is born of the Spirit. Do not be amazed that I said,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blows where it wish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do not know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John 3:3-8

니게도모라는 이름의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2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나이까?" 니게도모가 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 둘째 번째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육체는 육체로서 낳는 것이요, 영은 성령으로서 난 것이니라.

내가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원하는 곳으로 부는데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그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느니라. 성령으로 난 자마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3-8

I love this conversation so much because it wakes something up inside of me. Dust is dust. We all have it. We're all made of it and we need it's reliability. But SPIRIT...spirit is wild and unpredictable...it's movement and healing and creativity and joy and LIFE. Like a meadow full of wildflowers or a bank filled with raspberries - beauty grows WILD and free and that kind of life sounds better than anything I could try to recreate in a desert of my own making.

이 대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 안에 어떤 것을 깨우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지는 먼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은... 영은 야생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움직임과 치유와 창의성과 기쁨과 생명입니다.

마치 야생화로 가득한 초원이나 산딸기로 가득 찬 독을 생각하듯이 아름다움은 야생하게 자유롭게 자라고 그런 종류의 생명은 내가 만든 내 사막 속에서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것보다도 좋아 보입니다.

Again Jesus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also I am sending you." [22](#)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John 20:21-22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22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21-22

The breath of the risen Jesus, transfers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to the disciples. New life. New hope. New purpose in our old dust.

(KEYS BACK UP HERE)

Dust + Breath:

1. Displays His goodness to the world
2. Grows into sturdy gardens that bear good fruit - unshaken by disaster

먼지 + 숨결:

- 1.세상에 그의 선을 나타냅니다.
- 2.재앙에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튼튼한 정원으로 자라납니다.

Whenever I read about the garden, it sounds magical to me. Fruit and flowers and animals and probably really good weather. No sin. No shame. No fear. No heartache.

But bigger than all of that, is that the garden is where the presence of God is rich and true and beautiful. It's where He walks with His creation in the cool of the day. Where His imprint on their lives is crystal clear.

정원에 대해 읽을 때마다 그것은 저에게 마법 같습니다. 과일과 꽃과 동물들이 있고 아마도 정말 좋은 날씨가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수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원이 하나님의 존재가 풍부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창조물과 함께 하루의 서늘한 시간에 걸어도닙니다. 그의 삶에 대한 그의 흔적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This imprint creates something different than a friendship and something different than a servant/master relationship - it creates a partnership. The Creator of all things, invites His creation to step into the work with Him. To pick up a shovel, to cultivate soil, to plant some seeds, to build and name and create alongside Him.

RESPONSE: What is most alive in you today? How close do you feel to the breath of God? Where are you cultivating? What needs to go and what needs to grow?

오늘 가장 생동감을 느끼는 것은 목적감과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에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경작하고 있는 곳은 제 관계, 창의성 및 영적 성장입니다. 삶에서 버려져야 할 것들 - 제 진전을 방해하는 습관, 태도 및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나에게는 성장을 촉진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 개인적 발전, 관계 및 주변 세계에 대한 기여 등입니다.

BENEDICTION

Maybe:

1The desert and the parched land will be glad;
the wilderness will rejoice and blossom.

Like the crocus, **2**it will burst into bloom;
it will rejoice greatly and shout for joy.

The glory of Lebanon will be given to it,
the splendor of Carmel and Sharon;
they wi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splendor of our God.

3Strengthen the feeble hands,
steady the knees that give way;

4say to those with fearful hearts,

“Be strong, do not fear;

your God will come,

he will come with vengeance;

with divine retribution

he will come to save you.”

5Then will the eyes of the blind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unstopped.

6Then will the lame leap like a deer,

and the mute tongue shout for joy.

Water will gush forth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desert.

7The burning sand will become a pool,
the thirsty ground bubbling springs.
In the haunts where jackals once lay,
grass and reeds and papyrus will grow.

8And a highway will be there;
it will be called the Way of Holiness;
it will be for those who walk on that Way. Isaiah 35

아마도:

1 사막과 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며;
황무지가 즐거워하고 꽃피워 봄날이 될 것이다.
도드람과 같이

2 그것은 활짝 피어나며;
크게 기뻐하며 기쁨으로 외쳐부를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며,
카르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3 연약한 손을 강화하고,
나약한 무릎을 굳게 하라;

4 두려워하는 마음에게 이르기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며,
그분은 복수와 함께 오실 것이다;
신성한 보복으로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5 그 때마다 눈이 보이지 못한 자의 눈이 열리고
귀가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6 그 때마다 저는 어린 사슴처럼 뿔 것이고,
말을 못하는 혀가 기쁨으로 외칠 것이다.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며
황무지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7 불타는 모래가 못이 될 것이며,
목마른 땅에는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여우가 누웠던 곳에서도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자라리라.

8 그리고 거기에는 대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길이라고 불리며,
그 길 위를 걷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사야 35

